‘천년의 향기 가득’ 내소사 산사음악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천년의 향기’ 주제로



전북 부안의 대표적인 천년고찰 내소사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11월 2일 가을색이 짙어가는 고색창연한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2018 내소사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순창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정읍 정토사 주지 일묵 스님,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군의회 의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령 1,500년 된 당산나무와 천년고찰의 전각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천년의 향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부안 우도농악의 길놀이와 여는 마당에 이어 국악프로젝트그룹 리음, 정상급 성악가로 구성된 벨라보체,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출연해 경내를 가득 메운 관객들과 하나 되는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진성 스님은 “천년의 불교문화가 숨쉬는 내소사의 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전통예술과 대중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천년고찰의 문화도 즐기고 마을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사음악회에 앞서 경내에서는 지역 먹거리와 특산품을 즐길 수 있는 나눔장터를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단청그리기, 전통차 시음, 연꽃등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0원으로 전하는 희망 콘서트”

부산생명나눔 11월 16일, 시민회관 소극장서

‘100원’이라는 작은 정성이 모여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콘서트가 개최된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1월 16일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13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개최한다.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콘서트에서는 희망나눔에 동참하는 봉사자 표창과 기금전달식이 진행된다. 기금은 사단법인 미소원과 해동고교 학생들이 1년 동안 모은 것이다. 콘서트는 자명 스님, 백련싱어즈 등 불자 가수들이 나와 무대를 장식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부산생명나눔은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장기이식만이 마지막 치료 수단인 환우들을 위해 장기기증 결연사업을 펼치고 치료비 후원으로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콘서트를 개최한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韓日 여성불자, 양국 문화 교류로 화합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부산 · 운문사서 열려

한국과 일본 여성불자들의 교류 및 화합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 · 이하 한일불교교류협)는 11월 5~7일 제13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부산 및 운문사 일대에서 개최했다.

본격적인 교류대회에 앞서 5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양국 대표와 임원진들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양국 불자들은 운문사에서 한국 사찰음식 체험과 특히 추석 명절 고유 음식인 송편을 직접 만드는 문화의 자리를 열었다.

백명숙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이웃사촌과 같다. 서로를 위해 힘을 합친다면 지구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타카노 후세키 회장은 “올해 이상할 만큼 일본에 자연재난이 많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돕고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양국의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화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최대 규모 템플스테이관 ‘門 활짝’

부산 내원정사 11월 4일 개관… 국제힐링센터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내원정사는 11월 4일 국내 최대 규모의 템플스테이시설을 개관했다. 사진은 내빈이 현판식을 하는 모습.

1972년 10여 명의 신도와 함께 천막법당으로 시작한 내원정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템플스테이시설을 건립하고, 아울러 세계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국제명상힐링센터 완공 소식을 알렸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11월 4일 ‘템플스테이 생활관 및 국제명상힐링센터’ 개관식을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생활관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봉행했다.

행사는 동국국악예술단 및 내원 · 혜원연합합창단 음성공양으로 축하 무대를 시작해 개식을 알렸으며, 대중은 삼귀의와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았다. 이어 내빈소개 및 불사경과보고가 진행됐으며 내빈들은 축사로 완공을 축하했다. 주지 정련 스님의 인사말을 끝으로 대중은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현판식을 바라보며 첫 출발을 기뻐했다.

앞으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 및 국제명상힐링센터는 수행과 힐링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회향된다. 특히 템플스테이 생활관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14년 2월 착공한 생활관은 국비 13억 원, 지방비 20억 원, 자부담 87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투자됐으며, 부지 4만5282㎡(1만36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6,202㎡(1,877평) 규모다. 수련실, 간경실, 사경실, 명상실, 예경실, 발우공양실 등을 갖췄으며 25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국제명상힐링센터는 건축면적 1,497㎡(453평)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이다. 생활관 바로 뒤에 위치하며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와 한국불교를 안내하는 요람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 120억 원 투입

250명 동시 수용 가능해져

개관까지 2000일 기도정진

“참 나 찾아가는 행복여정”

2007년부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내원정사는 부산은 물론 인근 경남과 울산 그리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찾는 힐링 명소로, 템플스테이 참여 집계 인원만 17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부족해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정련 스님은 “오늘 개관식이 있기까지 2000일을 기도 정진하며 발원에 동참해 주신 내원정사 신도 여러분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수행을 통해 본래 자기면목을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을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참실수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앞으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와 국제힐링명상센터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한국의 정신문화와 불교의 선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세계인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참 나를 찾아가는 행복여행이 확산될 것을 믿는다”고 축하했다.

내원정사 신도를 대표해 이법륜화 신도회장은 “큰스님이 50여 년간 쏟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원력이 이뤄낸 결실에 깊은 찬탄을 올린다”며 “종교, 세대, 지역을 떠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중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개관식에는 원로의원 월탄 · 암도 · 정관 · 철웅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등 승가 내빈과 오거돈 부산시장, 전재수 · 유기준 · 최인호 · 윤준호 국회의원, 공한수 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청소년 합창으로 연 맑은 세상”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제11회 청소년합창제 성료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제11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시상식 후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부산시에 울려 퍼졌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 ·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11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1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는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펼치는 장으로 마련되며 바른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합창제는 예심을 통과한 곡정고 라일라스 합창단, 금정중 금정쇼콰이어, 마산제일여고 합창단 등 5팀이 참여했으며 대상은 한스쇼콰이어에 돌아갔다. 금상은 성암국제무역고 합창단, 은상은 곡정고 라일라스, 동상은 금정중 금정쇼콰이어와 마산제일여고 합창단이 받았다. 시상은 대상에 상금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50만원, 동상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부산파라미타 총재 경선 스님은 “오늘 여러분은 무대에 올라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합창의 향연을 펼쳐줬다”며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가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성장하고 화합의 고리가 더욱 단단해졌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 놓쳐버린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11회를 맞이하는 파라미타 청소년 합창제가 여러분의 멋진 삶에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아름다운 화음을 완성했다’는 행복한 이야기 한 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창제에는 총재 경선 스님,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종로학원 이사장, 양재생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부산파라미타는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발해 창립 22주년을 맞았으며,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성장했다. 부산파라미타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 기관으로 40여 개의 분회와 1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